

<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>

데살로니가전서 5:16-18 / 새찬송가 406 (통일464)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

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.

1. 항상 기뻐하라

먼저 우리는 내가 지닌 소유나 내 존재나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. 이런 기쁨은 환멸과 허무를 가져다주는 불신자의 기쁨입니다. 왜냐하면 소유나 존재의 기쁨은 이내 잃어버릴까 염려하게 만들기에 결국 근심하는 자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(전2:10,11),(전2:2).

성도들은 오직 나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. 그때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아도, 내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‘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’을 믿기에 ‘항상’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(고후6:10).

2. 쉬지 말고 기도하라

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는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.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(눅22:39).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새벽기도 금요기도 산기도 작정기도 기도원기도 등등은 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.

어거스틴은 잘못된 의지가 욕욕을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. 습관이 된 죄를 이기는 것은 끊임없는 습관적인 회개 밖에는 없습니다(눅17:4). 마귀는 습관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소리 내어, 또 영과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(고전14:14,15).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이 죄는 성령을 훼방하는 죄와 함께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(삼상12:23).

3. 범사에 감사하라

마지막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. 이는 당연하게 보이는 일도, 사소한 일

도, 자연도, 구원도,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니 감사해야 함을 말합니다.

심지어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, 소유가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(합3:17,18). 이는 나의 존재보다 앞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내 존재가 위태로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.

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인데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원망과 불평을 해도 정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성경은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감사 하라고 말씀합니다(시37:7), (시37:1,2)..

결론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삼위일체입니다. 이 중 하나가 빠졌다면 다른 두 가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. 기쁨 없는 기도와 감사가 어렵고, 기도 없는 기쁨과 감사도 어려우며 감사 없는 기도와 기쁨도 어렵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.

<적용&실천>

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있습니까?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?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감사하고 있습니까? 셋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무릎을 세워 항상 기뻐합시다!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! 범사에 감사합시다!